

국어학반 학술답사 보고서

1. 답사 개요

(1) 기간

2000년 5월 1일~5월 4일(3박 4일)

(2) 지역

- ① 충남 남부 지역 : 개태사, 성삼문비, 쌍계사, 청풍사(아은 길재 사당)
- ② 무주군 지역 : 무주읍, 적상면, 설천면, 무풍면, 안국사, 설호사(박치 원 사당)

(3) 목적

충남 남부 지역 및 무주군 내의 국어학·국어학자 관련 유적 답사, 나
제통문을 경계로 한 무주군 내의 방언 분화 양상 조사.

(4) 참가인원 : 이병근 선생님 외 15명

지도교수 : 이병근 선생님, 김창섭 선생님, 이현희 선생님

조교 : 황선엽

1조 : 이안구, 윤민, 임근석

2조 : 신중진, 홍석준, 강진명, 이서란

3조 : 이지영, 송정근, 장위

4조 : 서승완, 신서인, 채숙희, 허라이

(5) 조사 방법

각 조별로 300개의 항목을 두 지점에서 조사하였음.

2. 답사일정

5월 1일

9시 학교 교문 앞에서 출발—개태사(12시 30분)—점심(1시 30분)—성삼문
비(탁본 : 2시 30분)—쌍계사(3시 30분)—(대둔산)—(금산읍)—(진산면)—청풍
사(4시 30분)—적벽강(5시)—무주읍(5시 30분)—무주호(6시)—저녁식사(7시)
—숙소도착(8시)—무주지역 개관 및 다음날 일정 논의(9시 30분)

5월 2일

기상(7시)—아침식사(7시 30분)—숙소출발(8시 20분)—설천(8시 40분)—무
주/무풍(9시)—적상(9시 30분)—방언조사(10시~12시)—점심(12시~2시)—방
언조사(2시~5시 30분)—무주(6시)—설천(6시 30분)—저녁식사(7시)—금일 조
사에 대한 평가 및 내일의 계획 논의(8시 30분)

5월 3일

기상(7시)—아침식사(7시 30분)—숙소출발(8시 20분)—안국사(10시)—점심
식사(무주 : 12시 30분)—방언조사(2시~5시)—雪湖祠(朴致遠 위폐 設位, 설
천면 소천리 양지마을 : 5시 30분)—저녁식사(7시~9시)

5월 4일

기상(8시)—아침 식사(8시 30분)—구천동(9시~12시)—점심 식사(1시)—서
울로 출발(2시)

3. 국어학반 학술답사

(1) 朴致遠과 『雪溪隨錄』

① 朴致遠

1680년(숙종6)~1767년(영조43).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밀양. 初名은
致遠이나 後에 改名하여 致和라 불렸으며 字는 士灝. 號는 雪溪·泣愆
齋·巽齋이다.

1708년(숙종34) 式年文科에 丙科로 급제하여 典籍, 예조·병조의 佐郎을
거쳐 陽城縣監을 지냈다. 당시 경종은 서론이 넘도록 자식이 없고 허약하였

기 때문에 노론들은 王弟 延礪君(후의 영조)을 王世弟로 책봉하였다. 이에 소론들이 반대 소를 올려 노론과 소론이 격돌하게 되었다. 이때 掌敎으로 있던 박치원은 왕세제의 대리청정을 상소하였으나 趙泰壽와 崔錫恒 등의 방해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魚有龍과 함께 조태구가 환관들과 내통한 것을 들어 처벌할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金一鏡의 상소로 잡혀들어가 문초를 받게 되었는데, 그는 굽히지 않고 언관의 권리를 주장하였다. 왕이 그를 놓아주려 하였으나 이어 睞虎龍의 고변으로 신임사화가 일어나 노론이 실각됨에 따라 固城으로 유배가게 되었다. 영조가 즉위하자 1725년(영조1)에 유배에서 풀려나 輔德과 司諫을 역임하였다. 1728년(영조4) 司諫으로 있을 때 소론 일파의 극형을 주장하다가 甲山으로 유배되었으나 1754년(영조30) 유배에서 풀려나와 同知敦寧府事에 보직되고, 1756년 知中樞府事에 이르러 耆老所에 들어갔다.

經筵參贊官으로 있을 때는 『論語』를 강독하면서 長沮와 梁溺의 예를 들어 영조의 탕평책이 是非를 흐린다는 풍자로 諫하기도 했으며, 1759년에는 王世子(후의 정조)의 대리가 과다함을 상소하였다. 1764년 영조의 친필을 하사받았으며, 1767년 司匱署提調를 겸하였다.

② 『雪溪隨錄』

朴致遠의 詩文集. 그의 姻親이자 門生인 慎敦恒이 衰輯하여 成編하고 손자인 龍赫이 1804년(순조4)에 宋煥箕의 序文을 받아 一本을 繕寫하여 家藏하였던 것을 5代 傍孫인 永壽 등이 1886년(고종23)에 刊印하였던 것인데 本集은 이를 臺本으로 후에 필사한 것이다.

이 책은 규장각과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데, 여기서 참고로 한 것은 규장각본(奎12046)이다. 이 책은 27卷 11冊으로 되어 있는 한문 필사본으로서, 크기는 31.5×20.5cm이다. 卷末의 附錄에 西湖金公, 慎敦恒, 權得中, 金東幹, 黃吉源의 祭文과 慎敦恒, 權得中, 黃吉源, 慎可默, 尹勉欽의 誄辭, 羅杰의 詩가 있다. 卷末에는 崇禎 5年丙戌年 초여름에 박치원의 5대 傍孫인 永壽의 印記가 있다. 한글 懸吐나 字句의 한글 풀이가 드물게 있다.

『雪溪隨錄』의 체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卷1~6 : 『周禮』에 대한 總論과 解說과 論辨 211편.

－卷1 : 總論

－卷2 : 王官總論, 王制 등에 대한 解說과 論辨 23편

－卷3 : <天官冢宰>에 대한 解說과 論辨 41편.

－卷4 : <地官司徒>에 대한 解說과 論辨 50편.

－卷5 : <春官宗伯>에 대한 解說과 論辨 31편, <夏官司馬>에 대한
解說과 論辨 22편.

－卷6 : <秋官司寇>에 대한 解說과 論辨 21편, <冬官考工記>에 대한
解說과 論辨 23편.

卷7~9 : 『春秋』에 대한 總論과 解說과 論辨 12편.

－卷7 : 總論

－卷8 : 隱公, 桓公, 莊公, 閔公, 僖公에 대한 解說과 論辨 5편.

－卷9 : 文公, 宣公, 成公, 襄公, 昭公, 定公, 哀公에 대한 解說과 論辨
7편.

卷10~11 : 『儀禮』에 대한 解說과 論辨 12편.

－卷10 : 土冠禮, 土昏禮 등에 대한 解說과 論辨 8편.

－卷11 : 聘禮, 公食大夫禮 등에 대한 解說과 論辨 4편.

卷12~13 : 『禮記』에 대한 解說과 論辨 17편.

－卷12 : 曲禮, 檜弓 등에 관한 解說과 論辨 4편.

－卷13 : 曾子問, 文王世子 등에 관한 解說과 論辨 13편.

卷14 : 『周易』의 <繫辭傳>에 관한 解說과 論辨.

卷15 : 『易學啓蒙』의 本圖書, 原卦畫, 明蓍策, 考變占에 관한 解說과 論
辨 4편.

卷16 : 『家禮』에 관한 解說과 論辨 7편, <綱目>에 관한 解說과 論辨 15편.

卷17 : 『律呂新書』에 관한 解說과 論辨 19편, <律呂證辨> 11편.

卷18 : 『皇極經世書』, 『洪範皇極內篇』에 대한 解說과 論辨, <黃帝素問>
에 대한 解說과 論辨 7편, <八陣圖說解>.

卷19 : 詩 117首, 賛 16편, 篇 2首, 祝文 1편, 祭文 3편, 書 8편.

卷20~27 : 雜識.

卷1~6은 『周禮』, 卷7~9는 『春秋』, 卷10~11은 『儀禮』, 卷12~13은 『禮記』, 卷14는 『周易』 繫辭傳, 卷15는 『易學啓蒙』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들은 經學研究의 자료가 된다. 卷16의 『家禮』에 관한 解說과 論辨은 禮說의 연구에, 綱目에 관한 解說과 論辨은 綱目 연구와 옛 인물의 재평가에 도움이 된다. 卷17의 ‘律呂’에 대한 내용은 도식까지 곁들인 상세한 논술이므로 동양 음악 연구에 참고가 된다. 卷18의 『皇極經世書』에서는 元, 會, 運, 世, 年, 月, 日, 辰 등으로 구분, 추리하여 천지개벽의 원리를 밝히고 있어 우주론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三禮인 『周禮』『儀禮』『禮記』뿐만 아니라 邵雍의 『皇極經世書』, 周熹의 『易學啓蒙』『家禮』『律呂新書』, 蔡沈의 『洪範皇極內篇』 등 성리학에서 주요한 책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또한 <八陣圖說解>에서는 八陣이 體이고 五陣이 用이라고 전제하고 용 병에 대해 자세히 논하고 있어 병법 연구의 자료가 된다. 卷20~27은 ‘雜識’라 하여 다양한 분야의 78조목에 대해 해박하고 정밀하게 논술하고 있는데, 특히 卷24의 23면부터 28면에 있는 字音에 대한 논의가 주목된다.

박치원은 국어의 字音을 五行과 음악의 五音에 비추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훈민정음해례』의 설명과 일치한다. 즉 ‘牙舌脣齒喉’가 五行인 ‘木火土金水’와 음악의 五音인 ‘角徵宮商羽’에 각각 해당된다고 하였다. 또한 ‘四時’에 비추어 설명하는 것도 일치한다. 이어서 全清, 次清, 全濁, 不清不濁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다. 또한 漢字의 제자 원리인 六書 중 象形과 會意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篆書와 隸書에 대해 설명한다.

그가 이러한 설명은 베룬 이유는 字音에 대한 논의의 결론에 잘 요약되어 있다. 즉 字學은 먼저 康節聲音數로써 字學의 근원을 알고, 다음에 六書之法으로써 字體의 변화를 다하며, 다음에 脣舌牙齒喉로써 五聲을 정하고, 다음에 十二律樂章字音으로써 五聲清濁의 변화를 다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논의는 성리학에 사상적 배경을 둔 철학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③ 『雪溪隨錄』에 수록된 자료

醢저시라/ 酱초이라(3 : 17ℓ)

假紵싼머리/ 髮髢다뢰다아즌머리/ 衡笄似非二物若今빈혁(3 : 23ℓ)

墳壤덩이진쌓/ 勃壤의겸쌓/ 苷若今소비(4 : 32 ㄱ)
 (掌屬) 白盛如今人染父灰之屬俗名사회(4 : 34 ㄴ)
 純쏘아기/ 盖斗平자개라/ 弓蓋斗 살이라(6 : 31 ㄴ)
 盖斗車蓋가온디바탕達常바탕가온디꿰는즈로나모라/ 程車蓋대나모라(6 : 32 ㄱ)
 搏몽쳐(6 : 18)
 煙指쓰려져(6 : 21 ㄱ)
 燒丹林三月淳沃其熾而潰之俗所謂지물들려(6 : 19 ㄱ)
 縱籠網者줄을싼거시라(6 : 22 ㄱ)
 彈彈戾也버르리져/ 彈彈轉轉爾처(6 : 22 ㄴ)
 約신고니신총우의꿈여발의민여신눈거시리總約中소요(10 : 2 ㄴ)
 複下曰鳥신창禪下曰屢창업순신(10 : 3 ㄱ)
 弼촘/ 箫고자/ 更也고쳐/ 互也서로/ 或言拾팔지(10 : 46 ㄴ)
 桢살악회(10 : 47 ㄱ)
 揉달오여/ 稍屬조금식이외들어/ 下쳐쳐/ 上너머(10 : 48 ㄴ)
 兼歛矣모도취여(10 : 49 ㄱ)
 遂以執附팔지을손우의언고弼을잡아—說左手을물니치고右邊으로弛弓을그
 우의더으로遂호야言左手에팔지호고弼호야然兩說皆未詳(10 : 49 ㄱ ㄴ)
 闡註門中來所豎短木두문마조닷는디션나모/ 檻門兩傍長木문양변설듀나모
 (11 : 9 ㄱ)
 楔如牛駕木명에(11 : 25 ㄴ)
 翘土昇흐리가마/ 系爭註삿가스인모양/ 古人俗後着明衣若今人격샴고의
 (11 : 27 ㄱ)
 繩신쇼/ 約신선/ 純신선/ 約신머리예칼집가단거슬다라노으로고을꼬여뒤의
 민여/ 袍[緣衣註]必有表言겹也/ 不襷[上同註]썩이벼(11 : 27 ㄴ)
 繢汲瓶索屈살여꺾고急據貌/ 生曰紛死曰襦살여노^으則其制似亦有異也/
 檀것어(11 : 28 ㄱ)
 或言自外納之也집머기기를박그로흐여/ 緜如今之 말혁이라/ 齊髦如今之상
 모 | 라(11 : 34 ㄴ)
 緝盛가마싸든말이라(12 : 12 ㄴ~13 ㄱ)
 健잠을쇠일閉잠을쇠통管蓄열쇠/ 稅徑小路俗所謂즈럼길(12 : 34 ㄱ)

輿치나모/ 機바탕(13 : 5ㄱ)

繫焉之벗디/ 纓焉之가음거리(13 : 14ㄱ)

蓋襲之橫을 열고 盖를 계쳐 멋쏘로 가게 흐 고 繩을 쌀고 剑을 우희노아드리는 니라(13 : 29ㄱㄴ)

絢或云 달마기(16 : 3ㄴ)

幅巾反屈之反뒷셔단말리라(16 : 4ㄴ - 5ㄱ)

外其飾向外編之言取其餘末向外집신집회야기와 그출밧그로 나게 흐여꼽지아 니케 흐달말이라(16 : 11ㄱ)

棟단마로/ 棟춘허(24 : 22ㄴ)

三代農民亦必服深衣而但全小其袖若今두루마기(24 : 20ㄱ)

羈俗謂굴네모양가리미(25 : 7ㄴ)

(2) 雙溪寺와 『月印釋譜』 권21

충청남도 논산군 가야곡면 중산리 鵲峰山에 있는 사찰이다. 이 절의 창건 연대 및 창건자는 미상이나, 고려 초기에 창건하였다고 전해진다. 현존하는 당우로는 보물 제408호로 지정되어 있는 대웅전을 비롯하여 羅漢殿 · 冥府殿 · 七星閣 · 凤凰樓 · 靈明閣 · 요사채 등이 있다. 이 중 예술적 가치가 높은 꽃살문과 굵은 칡덩굴로 만든 기둥이 있는 화려한 대웅전이 유명하다. 이 밖에 문화재로는 충청남도문화재자료 제80호로 지정된 부도와 쌍계사중건비명이 있다.

쌍계사는 『월인석보』 권21의 복각본이 보관되어 있던 사찰이다. 쌍계사판의 권말 간기에 의하면 1569년(선조2) 寒山 白介萬家에서 판각하여 恩津 雙溪寺에 보관하였다고 한다. 이 쌍계사판의 판목이 현재 공주 甲寺에 보관되어 있다. 『월인석보』의 복각본들은 그 대부분이 원간본을 版下로 하여 충실히 복각한 것들이므로 언어사실에 있어서 오각이나 탈각을 제외하면 원간본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쌍계사판은 간행자가 의도적으로 變改를 가한 부분이 있어 주목된다. 즉 동국정운식 한자음 종성 'ㅋ'이 'ㄹ'로 바뀌고(佛罷, 一월, ...), 종성 'o'의 표기가 삭제된 (地띠藏甕菩薩살, 爲위호야, ...) 예가 상당수 존재한다. 원간본과 같이 'ㅋ, o'이 그대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으나 이는 원간본의 영향일 뿐이다. 이 판본에서는 그것이 오

히려 실수라 할 수 있다. ‘**☶→ㄹ**’로의 변개는 한자음 독음에만 적용되고 고유어 표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처음날제). 한자음 종성 ㅇ의 삭제는 종성 ‘**ㅌ**’에도 적용되었다(求^ㄱ금←^ㅋ금, 道^ㅌ辱←^ㅌ辱)). 이는 종성 ㅇ의 삭제가 기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말해 주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부분적이지만 ‘阿阿僧^ㅋ승^ㅌ祇^ㅌ기(31a)←하승^ㅌ경, 地^ㅌ디藏^ㅌ장菩^ㅌ보薩^ㅌ살(15b)←땅^ㅌ짱^ㅌ뽕^ㅌ聲, 解^ㅌ해脫^ㅌ탈(30a)←쟁^ㅌ鼙^ㅌ’ 등과 같이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따르지 않고 현실한자음으로 독음을 표기한 문헌은 이미 15세기말부터 나타났다. 그러나 그것은 그 문헌이 원간본인 경우에 한한다. 복각본의 경우는 원간본의 언어사실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에 비추어 볼 때 이 판본은 특이한 예라 할 수 있다. 복각본이 아닌 改刊本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그 변개가 고유어 표기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한자음에 있어서도 철저하지 못한 점에서 개간본의 일반적인 성격과는 구별된다.

(3) 安國寺와 赤裳山史庫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포내리 赤裳山에 있는 사찰이다. 1277년(고종 14)에 月印이 창건하였다는 설과 조선 태조 때 無學大師가 ト地인 적성산에 성을 쌓고 절을 지었다는 설이 있다. 그 뒤 1613년(광해군 5) 3월에 중축하였고, 1864년에 李冕光이 중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에는 승병이 兵舎로 사용하였으며 주변에는 조선실록을 봉안하였던 史庫의 옛 터가 남아있다. 현존하는 당우로는 극락전·산신각·요사채가 있으며 극락전 안에는 掛佛이 있다. 극락전은 전라북도유형문화재 제42호로 지정된 건물로 1613년에 중건되었고 1864년에 중수되었다. 또한 적상산성에는 유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된 호국사비가 있다.

임진왜란으로 전주사고본을 제외한 실록이 모두 소실되어 교정본 1질과 再印本 3질을 새로 만들고 춘추관, 오대산, 태백산, 마니산(후에 정족산으로 이전), 적상산에 사고를 설치하여 보관하였다. 안국사는 적상산 사고의 수호사찰이었다. 적상산 사고에 보관되었던 실록은 한일합방 이후에 구황실문고에 편입되었다가 6·25 동란 중에 분실되고 일부만이 장서각에 남아 전해졌다.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적상산 사고본이 현재 북한에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4) 무주군 방언 조사 개관

무주군은 1읍 5면 48개 리로 이루어져 있고 군청소재지는 무주읍 읍내리이다. 군면적은 641.56km²이고, 인구는 4만 명 정도이다. 전라북도 북동부에 위치한 무주군은 소백산맥의 서사면에 자리잡고 있다. 동쪽은 경상북도 금릉군, 경상남도 거창군, 서쪽은 진안군, 남쪽은 장수군, 북쪽은 충청남도 금산군, 충청북도 영동군과 접하고 있다.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북도 등 5개도가 서로 접경을 이루고 있어서, 접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 한 군이면서도 생활권이 전라권, 경상권, 충청권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다. 언어도 나제통문을 경계로 하여 무풍면은 영남방언, 그 외 지역은 호남 방언이 사용된다. 특히 성조의 유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번 방언 조사의 목적은 무풍면과 그 외 지역의 언어 차이를 확인하고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이었다. 조에 따라서는 적절한 제보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두 지역의 언어차가 워낙 현저한 것이어서 그 차이를 체험해 본다는 소기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 다만 성조에 대한 전사 훈련이 부족하여 무풍지역의 성조를 제대로 전사할 수 없어 기록 상으로는 두 지역의 언어 차이가 어휘적인 면밖에 드러나지 않았다.